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0/22~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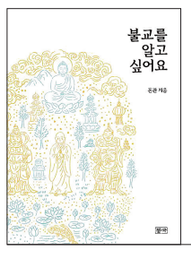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초역 부처의 말	코이케 류노스케	포레스트북스
2	화엄경 약찬게 풀이	김현준	효림
3	선정겸수	월암	담앤북스
4	고광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5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틱낫한	RHK(알에이치코리아)
6	법륜스님의 반야심경 강의	법륜	정토
7	신중도의 세계	현주	불광출판사
8	붓다의 철학	이중표	불광출판사
9	왕초보 불교박사 되다	석지현/윤창화/일지	민족사
10	동자승 컬러링 100	용정운	조계종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일상에서의 호흡 명상 숨	래리 로젠버그/미산	한언
3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4	월호스님의 게송명상	월호	맑은소리맑은나라
5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구슬	김성철	오타쿠
6	중론	용수 지음/청목 주석	오타쿠
7	한글아함경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8	화 : 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9	네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각묵옮김	초기불전연구원
10	원각경 강의	남회근	마하연

MZ세대 위한 돈관 스님의 '불교 길라잡이'



불교를 알고 싶어요
돈관 스님 지음
동국 / 1만8000원

동국대 이사장 '청년 전법' 매진
"불교 안내하는 징검다리 절실"
25년만 개정판…문답으로 풀이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대학생 전법의 새 장을 열고 있는 돈관 스님(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이 MZ세대를 위한 불교 안내서 〈불교를 알고 싶어요〉를 출간했다. 25년 전 불자들의 고민에 답하기 위해 썼던 책의 개정판으로, 오늘날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표현을 다듬고 내용을 보완했다.

돈관 스님이 불교 입문서를 새롭게 선보이게 된 건 교육 현장에서 느낀 절실함 때문이다. 스님은 취임 후 각 단과대학별로 불교동아리를 창립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3500여 명의 학생이 수계하는 '영캠프'를 개최하는 등 동국대를 대학생 전법의 거점으로 탈바꿈했다. 더불어 '힙(Hip) 불교' 열풍으로 불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지만 불교에 대한 '호감'을 넘어 부처님의 가르침에 쉽게 접할 수 있는 불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낀 스님은 청년 불자들이 불교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 다시 펜을 들었다.

책은 △경전 이야기 △불·보살 이야기 △교리 이야기 △상징 이야기 △기도·수행 이야기 △신행 이야기의 6부로 구성됐다. 불교 입문서지만 어려운 교리 대신 불교의 역사와 문화, 생활 전반을 문답 형태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부처님은 왜 그렇게 많은지, 경전의 이름은 무슨 뜻인지, 전각마다 왜 이름이 다른지 등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이 궁금하지만 누구에게 묻기 어려웠던 질문을 선별해 친절히 답한다.

특히 5부 '기도·수행 이야기'에서는 독경·간경·염불·주력·참선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수행법을 알려 준다. 스님은 "기도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원을 세우고, 이를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일념을 갖는 것"이라며 "일념 기도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마음의 근본을 깨닫게 하고, 마음의 눈을 열리게 해 부처님을 친견하고, 모든 소원을 성취하는 온갖 공덕의 근원이 될 것"이라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한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돈관 스님이 청년 불자들을 위한 입문서 〈불교를 알고 싶어요〉를 25년만에 재출간했다.

돈관 스님은 책의 서문에서 "그간 교리와 수행을 보다 알기 쉽게 전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어졌고, 젊은 세대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새로운 교육 방식들도 도입되었지만, 시대가 변해도 불교의 본질적 가르침은 변하지 않았다"며 "개정판에서는 교리 해설에 그치지 않고 불교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 쉬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의 관계와 호흡 속에서 깨어 있는 지혜와 자비로 드러난다"며 "이 책이 처음 불교를 만나는 분들에게는 친절한 첫걸음이 되고, 오랫동안 신행을 이어 온 불자들에게는 자신의 길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돈관 스님은 1978년 일타 대종사를 은사로 수계한 후 조계종 제14·17대 중앙종회의원, 은해사 주지,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대구불교방송 사장,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학교법인 동곡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동국대학교 건학위원장,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장 소임을 맡고 있다. 저서로 〈진리와 지혜의 나눔〉 등이 있다.

'찐불자' 청년들의 좌충우돌 유튜브 도전기



저절로 가는 건 시간밖에 없어
박유진 · 전혜정 · 홍사훈 지음
퍼플 / 2만2900원



유튜브 '절 턱 낮추기 프로젝트-저절로 간다'의 조계사 편.

청년 불자들 '저절로 간다' 기획
대본부터 촬영·편집까지 직접

지난 2000년 초,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유튜브 채널에 유쾌한 영상 한 편이 공개됐다. 청년 불자 세 명이 직접 사찰을 찾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절 턱 낮추기 프로젝트-저절로 간다'다.

'절 턱 낮추기 프로젝트'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이 프로그램은 "불교 콘텐츠는 왜 어렵고 멀게만 느껴질까?"라는 물음에서 시작됐다. 직접 '절 턱'을 낮추기로 합심한 이들은 불교를 더 가볍고, 더 현실적으로 전하고 싶은 마음에 카메라 앞에 섰다.

세 명 모두 대불련 회장, 집행위원 등의 소임을 맡아 불교에 대한 애정은 넘쳤지만,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는 그야말로 '생초보'였다. 촬영 허가를 받기 위해 공문을 쓰고 자료를 조사하고 카메라를 들고 절 마당을 뛰어다니고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까지. 무엇 하나 '저절로' 되는 건 없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저절로 가는 건 시간밖에 없어〉는 이들이 첫 기획 단계부터 마지막 편을 공개하기까지의 과정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긴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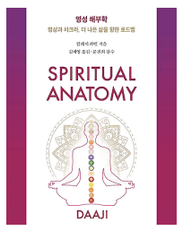
"돈도 안 되는 유튜브를 왜 하냐"는 질문에 이들은 답한다. 처음에는 그저 재밌어서 시작한 이 일이, 몸과 마음을 키우는 계기가 됐을 뿐 아니라 방송 출연과 직업으로도 이어지는 귀한 인연이 됐다고.

이들의 고군분투는 또 다른 크리에이터들에게 귀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이다.

이 책은 주문 시 인쇄, 제본되는 POD도서로 출간돼 인터넷 서점에서 주문할 수 있다. 여수령 기자

새로 나온 책

요가 철학의 지혜와 실천법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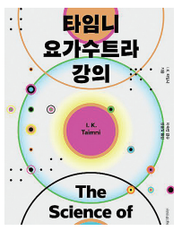


영성 해부학
캄레시 파텔 지음
김재영 옮김
문진희 감수
마이트리
2만5000원

20세기 초 인도에서 시작된 하트풀니스(Heartfulness) 명상의 계보를 잇는 네 번째 지도자, 캄레시 파텔이 하트풀니스 명상에 관한 연구를 집대성한 책이다. '영성 해부학'은 물리적인 인체 해부학과 달리, 인간 내면의 의식 구조와 미묘체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다.

'읽고 즐기기'에서는 영성 해부학의 중요성과 영혼의 기원을 탐구하고, '하고 느끼기'에서는 수행법의 핵심 개념과 차크라의 특징을 설명한다. '명상하고 초월하기'에서는 가슴·마음·중심 영역으로 나눠 영적 여정에서 만나는 경험과 상태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각 차크라별 지도를 제시한다.

과학자가 읽어낸 〈요가수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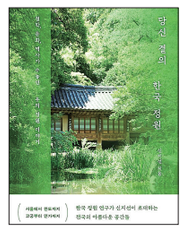


타임니 요가수트라 강의
I. K. 타임니 지음
정솔빛 옮김 / 이숙인 감수
나무를심는사람들
2만8000원

요가의 고전인 파탄잘리의 〈요가수트라〉는 방대한 요가의 정신을 196개의 짧은 경구에 담고 있어 그간 다양한 해설·주석서가 출간됐다. 이 책은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I. K. 타임니(1898~1978)가 〈요가수트라〉를 현대적 언어로 풀이한 책이다. 그는 "올바르고 균형 잡힌 개념, 명확한 개념을 제시해 요가의 근본 가르침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고 밝혔다.

저자는 인도 알라하바드대학에서 화학과 교수로 일하며 평생 요가를 연구하고 수련하고 가르쳤다. 책은 △사마디 파다(삼매의 길) △삿다나 파다(수련의 길) △비부티 파다(초능력의 길) △카야발야 파다(해방의 길)로 구성되어 있다.

자연으로 그려낸 우리 역사



당신 곁의 한국 정원
신지선 지음
수오서재
1만7000원

'정원(庭園)'이라고 하면 형형색색의 꽃이나 잘 다듬어진 나무가 먼저 떠오른다. 그런데 이 책에서 소개하는 정원은 조금 낯설다. 담장과 입구가 없거나 인위적인 손길이 닿지 않는 것 같은 곳도 있다.

영주 부석사가 대표적이다. 저자는 '막쌓기' 기법으로 만들어진 부석사 석축을 소개하며 "크고 육중한 돌들과 그 사이를 아름다운 선으로 메꾼 작은 돌의 조화는 마치 한 편의 추상미술을 보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한다"고 말한다. 이어 담양 소쇄원과 강진 다산초당, 논산 명재고택, 경주 독락당, 함안 무기연당 등에서 선조들이 새긴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읽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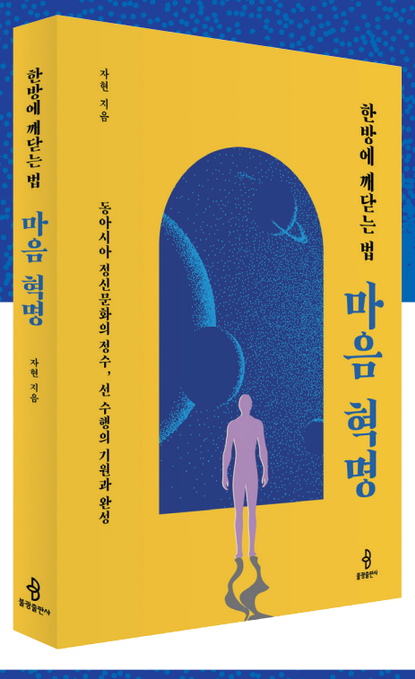
쉬어도 지치고, 달려도 불안한 현대인들의 마음에 관점 전환의 답을 건네는 '동아시아 정신문화'!

그 흐름의 정점에 '선禪'이 있다!



자현 스님의 여덟 번째 박사학위 연구를 바탕으로 조명한
"긍정의 철학, 부정을 넘어선 지혜"

물질문명의 풍요 속에서도 공허와 불안, 끝없는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는 단순한 힐링이나 자기계발을 넘어서는 새로운 길의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길은 '현실 긍정, 욕망 승화, 인식 환기, 걸림 없는 자유'라는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핵심 사유에 있다.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계보와 그 속에서 꽃핀 선 수행 확립의 역사는 오늘의 우리에게 '마음 혁명'의 길을 열어준다.



한방에 깨닫는 법
마음 혁명
동아시아 정신문화의 정수, 선 수행의 기원과 완성
자현 지음
336쪽 | 올컬러 | 30,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